

시

구름 되신 엄마

홍영숙

구름의 눈동자가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황량한 언덕바지 타르초*의 깃발은
하늘 향한 간절한 숏대
나부킴은 누구의 상처를 위무하는 중일까요

겹겹 구름 속을 뚫고 산 정상까지 오르고 싶은
곡진한 바람의 발 말굽 소리는
경전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네요

잡하지 않는 그 무엇을 위한 기도는
흰 뭇단배로 하늘을 정처 없이 떠도는지요

발밑 불안한 세상에서 엄마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기억하며 허공을 쳐다보셨는데

이제 구름 되신 당신은
내 손 따위가 잡으시려는지 긴 그리움이 넘실댁니다

세상의 속내가 깊어지는 저 먼 소설집 끝으로

*개일 같이 적어놓은 불경

〈해설〉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머니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살아생전 한없는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신 어머니. 어느새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여든가에서 구름으로 떠돌고 게실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약력〉문학예술 시 등단(2011). 광주문인협회, 서은문학, 전남여고문인회, 시소리꽃 회원, (사)서은병원문학연구소 시낭송 회장, 시집 '사랑 꽃으로 피고 외로움 잎으로 지다.'

시

사모(思母)

이겨울(본명 이근자)

영산포 다리밑 유채꽃 잔치
세상을 기워 입은
각설이의 신들린 가위춤
꽃잎 사르르 고향에 누우면
짙베개에 스민 모정의 노랑

어- 얼 시구 시구
악보처럼 두드리는 가윗소리
차르차르 모아진
울 멈니 삼베 적삼 이야기

장단 맞춰 짜지는
옛가락 같은 지난날
각설이 등 뒤에 비친
울 얹니 얼굴
아르르 낫달로 뜬다.

〈해설〉영산포 다리 아래 유채꽃밭에 열린 축제마당에 각설이가 흥겹게 장단에 맞춰 노래와 춤사위를 펼친다. 각설이는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춤과 노래로 구걸을 하며 살아 가는 놀이패다. 각설이의 가락과 사실에는 민초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정겹고 애뜻하다. 〈약력〉전국 국민의 시 공모 대상, 가정의달 효사랑 시 공모 대상, 2018년 국제PEN 올해의 작품상 수상, 시집 '허공을 마시다', '섬 하나 배개 삼고'.

시

평 잡는 게 매

신극주

꿈 희망 행복 실은 2019호가 배불뚝이로
모두에게 행복으로 활짝 웃을 때
평 잡는 매다

고슴도치 닮레마에 빠졌을 때 제 몸의 가시를
깨끗이 면도질할 줄 안다면
평 잡는 매다

얼췌 뱃노래에 취해 한눈팔던 사공이 어느새
땀으로 떨쳐나서 만선기를 휘날리니
평 잡는 매다

위장포 놀라쓰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생긴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가
평 잡는 매다

이름표만 달랑거리지 않고 속 차고 여문 낱알로
선망과 존경으로 배가 부른 시인이
평 잡는 매다.

〈해설〉세상에는 실속없이 허세만 부리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평잡는 매'다. 문학 역사나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인생의 진솔한 희노애락이 담긴 글이랴 감동을 준다. 〈약력〉아시아서석문학, 월간수필문학등단. 한국문인협회정책개발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 저서 시집 '뚝들이기' 수필집 '도둑술이야기', 광주문인협회 이사.

●수필

무돌길 9시간

박용서

광주광역시 및 여러 단체의 후원과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시행한 2015년도 춘계 ‘무돌길’ 걷기행사에 참가했다. 무돌길은 총 연장 51.8km 중 이번엔 43km를 1박 2일간 걷는 행사다. 주최 측에서는 예상인원을 500여 명으로 했었는데 실제 참가한 인원은 200여 명쯤 되었다

이른 아침 집결장소인 각화중학교 교정에 도착해 보니 함께할 다섯 명의 친구들이 먼저 와 반겨준다. 모두 1박 2일간에 필요한 물건들로 배낭이 가득해 보인다. 출발 전 행사로 각화중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와 여성봉사단체에서 난타 공연이 교정을 뜨겁게 달구었고, 이어 서 결전에 대비한 준비운동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고 산악인이나 대학생들이 많았다. 우리처럼 머리가 하얀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백리길 이상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08시 50분 드디어 출발했다.

우리는 안내자가 이끄는 선두 그룹에 나아

갔다. 뒤따라 걸으면 같은 길이라도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했다. 널따란 도로는 셋길로 접어들더니 이리저리 이어진다. 기다란 원색의 행렬은 자연과 잘 조화된 한편의 동영상을 보는 듯했다. 장엄한 무등산 정상을 우르르며 산자락을 잇는 무돌길은 무등산 둘레를 한 바퀴 휘돌아 가는 진기한 코스다. 그 옛날 붓점장사나 나뭇짐을 지고 나르며 생을 일구어 나갔던 옛길을 찾아 복원하고 이를 연결하여 2010년도에 ‘무돌길’을 개통하게 된 것이라 한다. 마을 골목길도 지나게 되지만 논두렁 밭두렁 길을 건너기도 했다. 곳곳에 수백 년 역사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고, 전래되어 온 문화유산들을 살펴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광주 북구 구간을 벗어나 담양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각종 단체에서 걷기 행사를 주최한 것을 종종 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으나 막상 참여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 발길 따라 수 없이 변화되는 주변 환경을 살펴가며 도

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걷는 기분은 참으로 즐겁기만 했다. 잠시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았다. 낭만과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길이라서 더욱 좋았다.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내를 지나 다시 우거진 숲속으로 이어졌다. 실바람이 일었다. 땀을 식히기엔 부족해서 더욱 사랑스러웠다. 하얀 솜털 구름도 떠 있다. 안내자는 도중에 유명지역에 대한 설명과 특색 및 유래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산속을 빠져나오자 아늑한 마을 어귀가 보였다. 이때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소리가 들려왔다. 이 마을에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늘 행사에 특별 초대된 6명의 악사들이라 한다. 참으로 고마운 배려며 흥겨운 여흥이다. 이 마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명품마을’로 선정한 ‘평촌’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선율은 가뭄에 단비같이 촉촉이 녹여 온 누리를 휘감고 돌아가는 듯했다. 그리고 꿀맛 같은 점심도 시락이 제공되었다. 마을 앞에는 거목의 당산 나무와 정자, 하천의 물소리가 운치를 더했다.

흥겨운 시간이 끝나자 다시 여장을 챙겨 우적우적 걷기 시작했다. 만일의 응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용차량이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깊고 얇은 산자락에는 잡초더미에 덮인 묘(墓)들이 을씨년스럽다. 천하의 영웅호걸도 죽게 되면 이 모양이 꼴 아니겠는가! 하루살이와 무에 다를까.

평소 내가 좋아하는 옛시조를 떠올리며 읊어 보았다.

청초(靑草)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웠난다
홍안(紅顔)은 어디두고 백골(白骨)만 무릇난이

잔(簾)자바 권하리 업스니 그를 슬허 하노라
이 시조는 백호 임제(1549~1587)가 평안도사(平安都事)로 부임하는 길에 잡초가 무성한 황진이 무덤 앞에서 읊조린 시조다. 이행들은 박수로 반겨주었다. 이 시조의 낭송은 피곤함을 잠시 잊게 했다는 생각도 든다.

담양구간에서 화순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우린 서로에게 무슨 말이건 건네야 했다. 피로엔 웃음이 보약이다. 심각한 이야기는 안 된다. 가뜰에 오르내리는 유머나 알맹이 없는 싱거운 말들에 덩달아 웃었다.

그런데 차츰 내 발바닥이 둔해지고 뜨거워짐을 느꼈다. 꼭 뜨거운 물에 퐁 것 같다. 평소 애 없었던 현상이다. 모두들 지쳐 말소리 웃음 소리가 줄어들었다. 힘이 들어 몸은 무겁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무슨 극기 훈련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다. 쉬고 나면 다리는 더 무겁고 이곳저곳 추시고 아팠다. 낭만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8시간쯤 걸었을 것 같다. 막막하고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게 세상 이치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화순 OK

목장가든에 도착했다. 성취감에 만족스러웠다. 오늘 27km를 걸었다. 예정 시간보다는 20여 분 빠른 9시간10분 만에 도착 했다고 한다. 저녁에는 닭백숙과 흥어회에 막걸리가 푸짐했다. 기막힌 맛이다. 무슨 큰일이냐 이뤄낸 듯했다.

다음은 화순구간에서 광주동구 구간을 걷는 날이다.

일어나 보니 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생겼음을 발견했다. 더 걸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비상차량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낭패가 또 있을까! 친구들은 양말 두 켤레를 포개 신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완주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남은 거리는 16km(약 6시간 소요) 출발 시 많았던 인원들은 중간에 포기해 버렸는지 완주 인원은 50여 명에 불과했다.

누군가 내게 “걷기행사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인가?”하고 묻는다면 “물론 참가한다. 걷기 여행의 진수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같이 먼 길이 아니길 바라면서”

〈약력〉조선이공대 정년. 문학춘추수필등단. 광주문인협회, 문학춘추작가회 회원. 공저 ‘물려 가는 길’ 1,2집. 현 무진주수필문학회 회장.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나뭇잎)은 10년간 연구한 알로에 겔의 효능을 높여주는 대두이소플라본(대두)을 함유하여 피부 건강을 위한 효과를 높여줍니다.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제로
무
판성향로

CMYK